고은 불교대하소설

인담 불타다

이제 우녀는 어떤 신이(神異)한 사람도 아니다. 그저 범속한 한 여자일 뿐이었다. 아주 높은 예지로 빛나서 마치 그의 눈빛에는 칼날이 수없이 들어있는 것 같은 적이 많았다.

그의 말 한마디는 그야말로 과녁을 비껴나가지 않고 정곡을 찔렀던 것이다.

그가 투시하는 눈빛이나 말 한 마디가 아니거라도 그가 이 섬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섬 둘레를 높은 성벽으로 쌓아올린 듯이 흡족한 안전감이 있었다.

무엇이든, 무슨 궁금한 일이든 그에게 물어보면 된다고 여기는 것이 이곳 도량의 의부세계와 거의 두절되다시피 한 나날에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하늘이기도 하고 땅이기도 하였던 것일까.

그런 우녀가 지난번 이래 그의 몸과 마음 속에서 일체의 힘을 빼내버린 채 한 여느 여자로 돌아갈 줄이야…,

그것은 시체가 들어있지 않은 빈 관이 묻힌 무덤과 같고 가을의 뱀이 벗어놓은 허물이 가을바람에 백없이 펄쩍이는 것과 같았거니와 그보다 다른 것은 그가 어떤 치매 비슷한 동작을 보일 때도 있다는 사실이었다.

된장을 간장으로 알고 떠오다가 그것마저 다 엎질러 버리는가 하면 낮의 공양을 위해 씻어둔 생쌀을 난데없이 바닷물에 한 줌씩 뿌려버리며 "아나 너희들 실컷 먹어라. 왜 고프겠구나"하고 소리치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런 우녀를 인담은 그대로 보고만 있었다. 인담조차도 이제는 우녀에 버금가는 예지가 씰물처럼 쏙 빠져나간 범속한 남자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 인담일 때 불품없는 청나라 해적 패거리한테 곤욕을 치른 뒤 갑자기 그의 몸안에서 마음의 불이 일어나더니 그의 몸을 불태우는 이변으로 되었다. 어이없는 일이었다.

어디에 불씨가 있어서 불붙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고대신라의 한 천한 신분의 떠돌이 사나이가 여왕을 짝사랑한 나머지 그 사랑이 불로 타올라서 그 자신의 몸을 재 한 줌으로 만든 일을 떠올리기에 충분한 사건이기도 하였다.

인담은 반나절동안 그의 몸이 불덩어리로 된 채 자글자글 타다가 빠다귀를 남긴 재 한 줌이 되었다. 재는 곧 바다바람에 날려 흩어졌다. 메스꺼운 냄새도 흩어졌다.

우녀는 그렇게 사라져버린 인담에 대해서 어떤 일도 하지 못한 채 그곳에 얼씬거리고 있었다.

"……."

그는 슬픔도 모르고 있었다. 파도소리만 언제까지나 듣고서 있었던 것인지 모른다.

하지만 그가 혼자 중얼거렸다. 그러면서 인담의 유골을 하나하나 베 보자기에 쌌다. 그것을 들고 무욕도 꼭대기 쪽으로 천천히 올라갔다.

그곳에는 마치 그런 우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솔바람소리가 바다로부터 독립되어 있었다. 그런 솔바람소리 안에서 어떤 말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다.

그러나 우녀가 그런 말의 뜻을 제대로 알아들을 리가 없었다.

그 소리란 겁말(劫末)의 바짝 마른 대지에서 불이 나 일체 만상을 다 태우는 일을 허공의 신들이 바람소리 사이에 들려준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곳은 이제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는 없다. 우녀야말로 한갖 어리석은 중생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 있기 때문이다.

아니 그 소리는 당장 무욕도 자체가 불덩어리로 된다는 경고인지도 모르지만 그 경고도 지금으로서는 다만 솔바람소리의 그 뱃속 쓰라린 냉기만으로 들리는 것이었다.

우녀는 그 솔숲의 한군데 움푹 패인 곳에 인담의 뼈 보따리를 내려놓고 흙을 긁어모아 작은 무덤을 만들어 놓았다. 그의 손톱에 피가 묻어나올 만큼 그 일을 하였다.

그곳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내려왔다.

내려오는 길에 우녀는 발을 헛디뎌서 저만치 나가떨어졌다. 머리 쪽도 땅에 찧어댄 것인가.

문득 어리석은 우녀가 그 이전의 우녀로 돌아갔다. 그는 입 안에서 피를 토해냈다. 세상이 환하게 열리는 그런 놀라운 경험 때문에 그 기운이 다 빠진 눈안에 다시 이전의 눈빛이 담겨 있었다.

"흐음! 인담 20년 수행도 이렇게 헛되단 말인가. … 그렇기도 하겠지. 수행이 헛되어야지. 어디 그것이 헛되지 않아서야 수행이라 할 것인가."

우녀는 그의 혼잣말에 대꾸를 이었다.

그것은 일찍이 그가 한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 한 선사의 임종게(臨終偈)였다.

"푸른 산이 더러운 송장 받을 리 있느냐 / 죽어 어찌 땅 파고 묻어줄손가/ 돌이켜 보니 나에게는 삼매 불길 없어/ 본래 없는 한 무더기 땔감이리…."

우녀는 몇마디를 더 주고 받는 혼잣말을 이어갔다. 그러다가 다시 그의 머리는 캐어난 상태가 다함으로써 평범한 어리석음과 예기치 않은 치매의 때로 돌아가고 만 것이다.

이제 무욕도 도량은 사실상 끝장났다.

우녀 한 사람이 남아있어도 그녀는 다만 어리벙벙한 채 섬을 지키고 있을 뿐이었다.

그럴 뿐더러 그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동안 어딘가 섬 밖으로 나가고 싶은 생각이 일어났다. 이제까지 그는 무욕도에 뿌리깊이 박힌 바위덩어리처럼 이 섬의 주인공이 아니었던가.

그녀가 바위언덕 넘어로 간 것은 인담이 불타버린 뒤 10여일이 지나서였다. 거기에 배 한척은 남아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 아니 한 거룻배 한 척도 없어졌다.

그런 정도의 것을 해적들이 떠나며 가지고 갔을 리도 없다.

그는 다시 또 한 채 남겨진 아랫채의 숙소로 돌아왔다. 몸 전체에 퍼붓는 피로때문에 그대로 누워있을 수 밖에 없었다.

그는 실컷 잠들어 있었다. 잠이야말로 우녀에게 남은 행복이었다.

그런데 그가 깊은 잠에서 얕은 잠으로 옮겨갈 무렵 그의 등줄기가 닿은 방바닥이 흔들리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떠지지 않았다. 이어서 방바닥이 흔들리면서 그 방바닥 밑으로 무언가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았다.

그러나 우녀는 그때부터 꿈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꿈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행위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이제까지 그가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런 사람들의 얼굴은 망나니의 물 묻은 칼에 잘려나간 사형수의 목이 긴 장대 위에 매달린 그 효수(梟首)와 같은 모양이었다.

그 얼굴에는 무욕도를 거쳐간 사람들이 먼저 나타났다. 만화, 곰보 남각, 함두 무전 파한 그리고 수원 수월 불이….

어디 그뿐인가. 효영 명오 상수 상을 대해 소석 박월 길성 순풍이 우식과 만우 그리고 심술장이같은 앵무새와 무욕도 바다의 갈매기들….

아니, 무욕도 꼭대기에서 바라보이는 육지의 어렴풋이 보일락 말락하는 마애석불 언저리….

그동안 이 섬에 건너왔던 시주(施主)들이나 아전 그리고 수군이나 해적들의 얼굴들….

그러다가 우녀가 이 섬에 오기 전의 예처 시간을 가로막고 있었다.

드디어 흐린 하늘에서 비가 퍼붓기 시작했다. 우녀는 그동안의 메마른 몸을 그 비에 흠뻑 적셨다.

그러면서 꿈에 나타난 얼굴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가만히 불러내고 있었다. 비는 그 이름이 달려오는 것처럼 더 세찬 빗발이 되었다. 그 비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기세로 퍼부어서 끝내는 우녀가 기거하는 아랫채 요사마저도 무너뜨리고 말았다.

"아."

우녀의 짧막한 소리가 나왔다. 이제 무욕도에는 단 한채의 도량 당우(堂宇)도 없게 되었다. 붙터버렸거나 무너졌거나 하여 이제는 인담이 처음으로 이 섬에 올 때처럼 어디에도 사람이 거처할 곳이 없게 된 것이다.

우녀는 비 맞는 일을 마땅히 해야할 의무처럼 계속할 수 밖에 없었다.

지금으로부터 2백년전쯤 이 무욕도가 큰 기도도량으로 번성하던 시대가 가고 다시 한번 몇몇 수행자들이 건너와 빈 섬을 공부로 채우다가 다 떠난 뒤 오래동안 사람의 흔적 없는 무인도로 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인담이 건너옴으로써 오늘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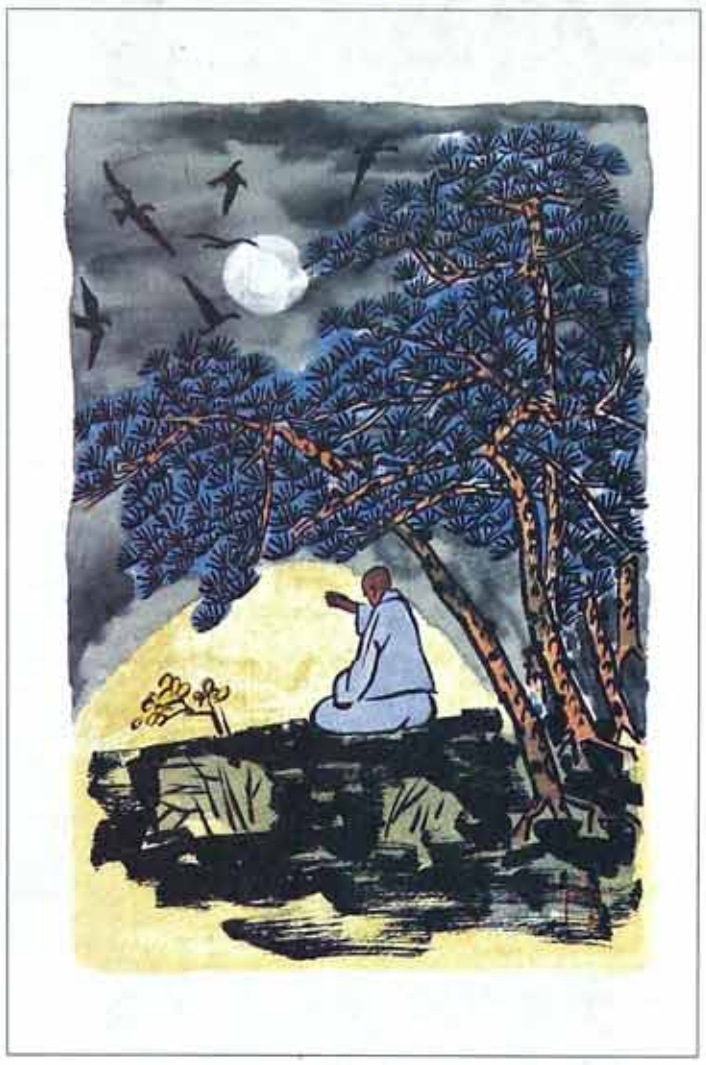
어느날 부처님은 파타리푸트나성에서 아난에게 말하였다. 장차 이 섬이 무너진다면 반드시 세가지 일로 그렇게 되리라. 큰 비의 홍수가 범람하거나 큰 불의 화재이거나 그것이 아니면 이 성안의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과 내통하는 때이리라.

일찍이 인담이 무량사에서 해골을 걸망에 담고 떠도는 고골관(枯骨觀)의 객승으로부터 들은 토막얘기였지만 그 얘기가 무욕도의 일에 딱 들어맞아야 할 까닭도 없었다.

하지만 그 인담도 없는 상태의 고독 밖에 지닌 것이 없는 우녀한테 이번 큰 비는 하나의 종말을 앞당기고 있음에 틀림없었다.

비가 퍼붓는 중에도 땅은 이따금 흔들리고 있었다. 바다 쪽도 한 줄기의 파도가 다른 파도보다 높게 치솟아가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다밑의 지진 때문이었다.

과연 이섬은 지진의 앞단계에 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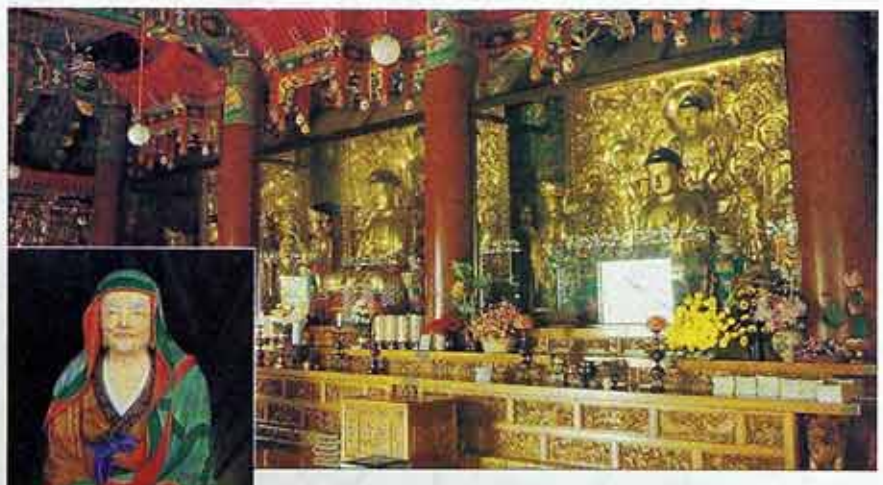


그림·조향숙

> 인담의 뼈를 묻은 우녀는 섬을 떠나고 싶었다 꿈에 나타난 얼굴들이 빗발이 되어 달려오고 있는데…

바다밑 지진과 세찬 빗발은 무욕도의 종말을 앞당기고 있었다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닫집…) 등등
- 불교 목공예품 ~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본 조각원의 소불은 금속 합금이 아닌 99.9% 청동으로 조성합니다」

불사의전당 불교조각원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TEL: (02)738-8447~8 대표 이진형 합장